6-Episode Seasonal Series

SOULR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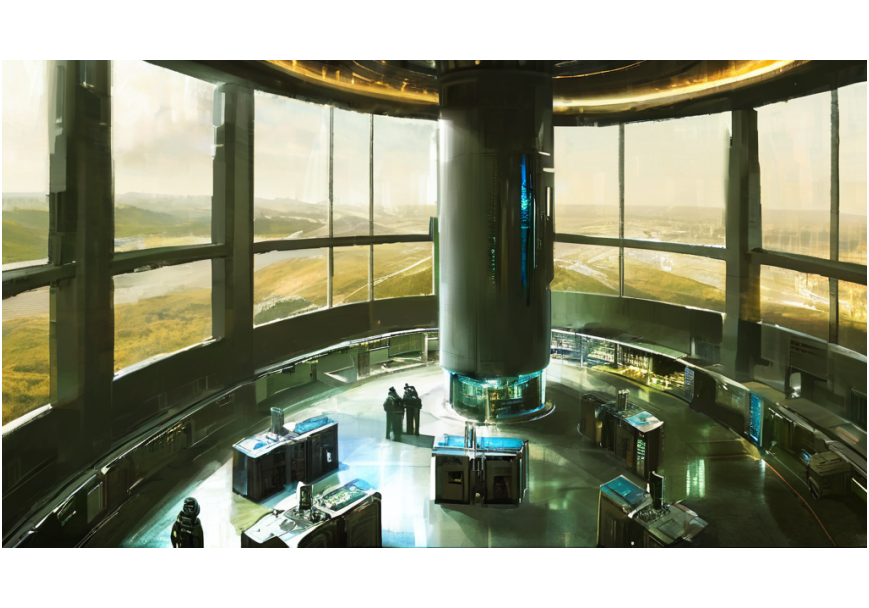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20

❖

“뭐해? 빨리 도망치지 않고?”

지희가 소리쳤다. 에라 모르겠다, 동녘은 일단 뛰어나갔다. 복도를 나서자,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다. 동녘과 지희를 발견한 대원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 동녘은 총알을 피해 도망치면서 어디로 가야 하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지희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명확한 방향으로 달려나갔다. 동녘은 일단 지희를 따라 달리기로 결심했다.



지희가 발길질로 문을 열자, 거대한 탑 같은 구조물이 있는 시스템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게 뭐에요?”

동녘이 놀라 묻자, 지희가 대답했다.

“당신 기억 안 나? 당신이 만든 양자 융합 시스템이야. 여기서 모든 개체를 컨트롤 한다고.”
“모든 개체를 컨트롤?”
“멀티 컨트롤. 소연 AI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컨트롤 시스템의 핵심이야.”

지희는 설명할 겨를이 없다는 듯, 동녘의 뒷목을 붙잡고 시스템 콘솔 앞으로 끌고 갔다.

“자, 빨리 접속해서 모든 게이트를 열어줘. 아니면 아예 모든 시스템을 파괴해도 좋아.”
“제가요? 나 이거 기억 안 나요!”
“어차피 백호의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액세스 가능할 거야.”

동녘이 미처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지희가 동녘의 손목을 낚아채서 콘솔에 대어 동맥을 스캔하게 만들었다. 모니터 위에 텍스트 인터페이스가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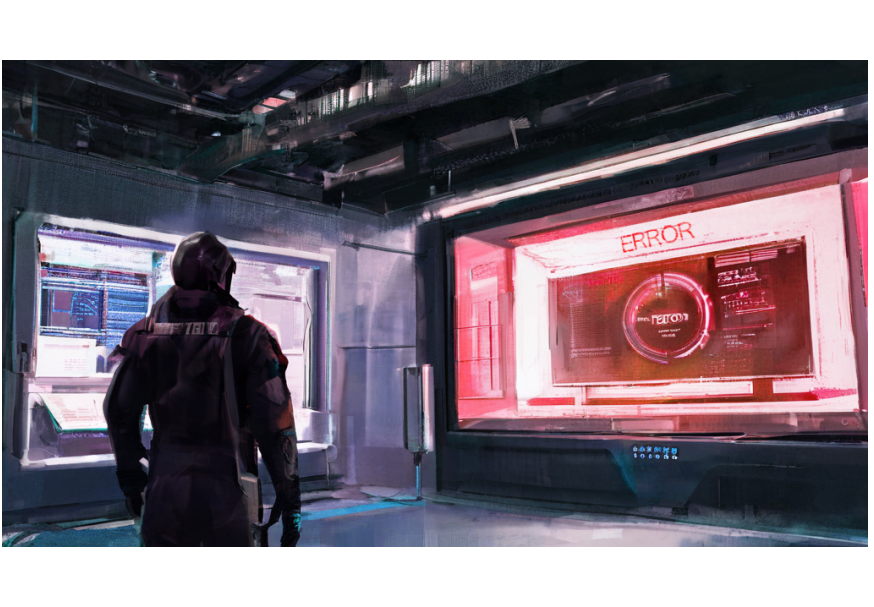
[신원 강백호, 시스템 액세스 성공]

“시스템 디토네이터를 실행해!”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냥 생각해!”

동녘은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눈을 감고 ‘시스템 디토네이터’를 생각했다. 그러자 모니터 위에 또 다시 텍스트 인터페이스가 떠올랐다.

[시스템 디토네이션 실행]

그리고는 10초부터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었다. 예상대로의 진행에 지희가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모니터가 빨갛게 물들며 불길한 메시지가 떠올랐다.



[시스템 실행 거부]

“뭐지? 왜 거부를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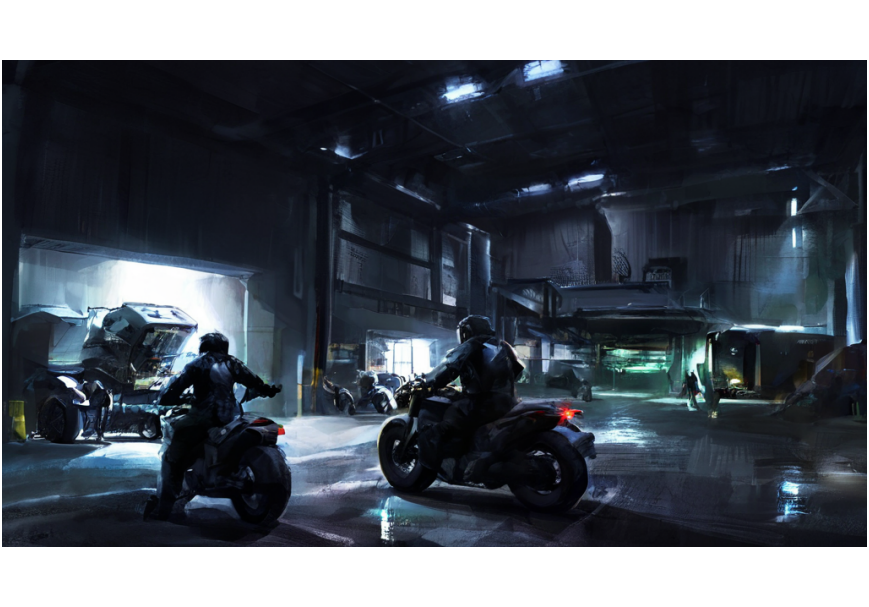
동녘, 눈을 감고 다시 ‘실행’을 생각해보았다. 그러자 다시 모니터가 빨갛게 물들며 똑같은 메시지가 출력되었다. 지희가 비웃듯이 말했다.

“소연이 방해하는 건가 봐. 네가 어지간히도 싫었나 보다.”

오리엔티스 대원들이 양자융합 시스템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희가 동녘의 손목을 붙잡고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데요?”
“그걸 몰라서 물어?”
“모르니까 묻죠!”

❖



한참을 달려 지희와 동녘이 다다른 곳은, 온갖 차량들과 바이크가 가득 찬 격납실이었다. 지희가 바이크에 오르자 동녘도 뒤따라 바이크에 탑승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가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있겠나?”

뒤에서 태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녘과 지희가 뒤를 돌자, 오리엔티스의 대원들이 무장한 채 동녘과 지희를 겨누는 가운데 태웅이 노려보는 모습이 보였다.

“이러고서도 네가 내 아버지다 주장할 수 있어? 너는 역시 네모의 첩자일 뿐이었군.”

억울해진 동녘이 상황을 설명하려는데, 태웅이 먼저 말을 가로막았다.

“그게 아니면 지금 저 여자와 도망치고 있는 네 모습은 뭔데? 얼른 체포해!”

대원들이 총을 겨눈 채 천천히 동녘과 지희가 탑승한 바이크를 향해 다가왔다. 지희가 동녘의 귀에 대고 말했다.

“캣츠아이 가지고 있지?”
“어, 그걸 어떻게 알았지?”
“실행해.”
“어떻게 실행하는지 몰라!”
“그건 나도 몰라! 네가 알아야 하는 거 아냐?”
“나도 그런 기억은 없단 말야!”
“일단 마음을 먹어봐! 아까처럼!”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가까이 다가온 대원 하나가 지희와 동녘의 총을 발로 차서 떨어뜨렸다. 무장이 해제된 동녘과 지희에게 대원들이 달려들었다.

“얼른!”

지희의 재촉에 동녘은 눈을 감고 “캣츠아이 조종! 캣츠아이 조종!”을 외쳤다. 그러자 지희가 너무 경망스럽다는 듯이 소리쳤다.

“좀 더 차분하게! 진심으로!”

동녘은 마음을 비우고 신경을 집중했다.

“캣츠아이 조종.”

그러자 가슴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캣츠아이가 빛을 발하며 허공 위로 떠올랐다. 동녘과 지희, 그리고 태웅을 포함한 오리엔티스의 대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캣츠아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동녘이 말했다.

“뭐야 이러면 되는 거야?”

태웅과 지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동녘과 똑같은 말투로 대답했다.

[뭐야 이러면 되는 거야?]

지희가 신이 나서 외쳤다.

“그래, 그렇게! 대신에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자 움직인다고 생각해!”
“뭐야, 그게 가능해?”

모든 대원들이 일제히 합창하듯 말했다.

[뭐야, 그게 가능해?]

“여러 유닛들 조종하는 게임 안 해봤어? 그런 느낌을 떠올리면 돼!”
“난 하나 움직이는 것도 벅찬 사람이라 전략 게임 싫어해서 1인칭 게임만 한단 말야!”

모든 대원들이 다시 일제히 합창하듯 소리쳤다.

[난 하나 움직이는 것도 벅찬 사람이라 전략 게임 싫어해서 1인칭 게임만 한단 말야!]

귀를 틀어막고 있던 지희가 지긋지긋하단 말투로 말했다.

“아, 너무 시끄러워. 일단 얘 이용해서 수갑부터 풀어봐.”

잠시 고민하던 동녘은 신경을 집중해서 가장 먼저 다가와 발로 차서 자신들의 총을 떨어뜨렸던 대원으로 하여금 수갑을 풀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자 그 대원이 앞으로 다가와 수갑을 풀어주는 게 아닌가.

“오, 이게 되네?”

수갑이 떨어지는 동시에 모든 대원들이 또 일제히 합창하듯 말했다.

[오, 이게 되네?]

지희가 바이크에 타며 날카롭게 말했다.

“이제 말하지 말고 생각으로 해! 얼른 탈출하자.”

동녘도 뒤따라 바이크를 타려는데, 모든 대원들이 일제히 바이크를 타려고 하는 바람에 서로 뒤엉키고 부딪혀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지희가 캣츠아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야! 됐다! 이제 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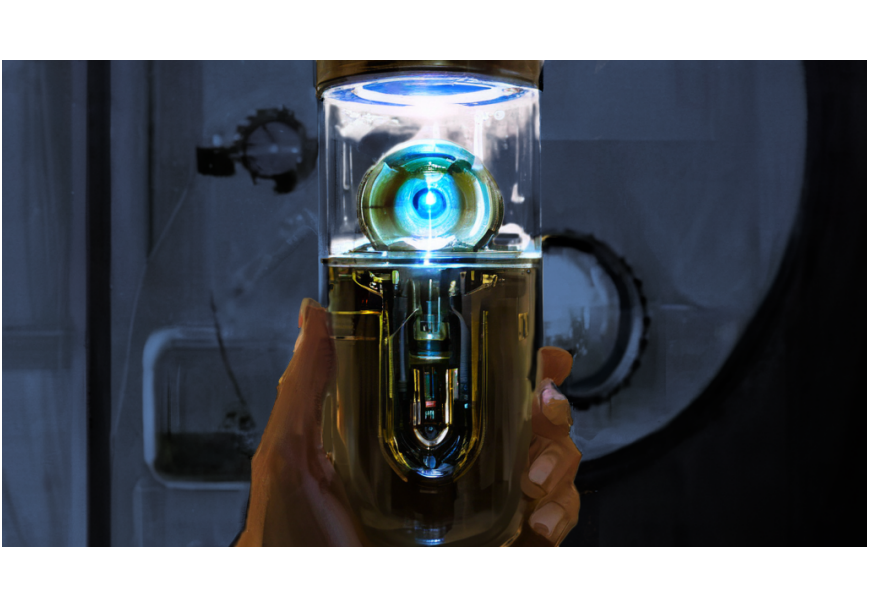
동녘이 캣츠아이를 집자 대원들이 점차 의식이 돌아오는 게 보였다. 몇몇 대원들은 혼란스러운지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차리려 애쓰고 있었다. 동녘이 바이크를 타고 나가려는데 태웅이 동녘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말했다.

“멀티 컨트롤이 그렇게 쉬운줄 알았나?”
“너는 왜 컨트롤에 걸리지 않았지? 지희도 그렇고?”
“그건 내가 묻고 싶은 건데 아쉽군, 더 이상 실험할 수 없게 되서.”

태웅이 망설임 없이 총구를 당기는 동안, 갑자기 다시 캣츠아이가 발광하며 대원 하나가 태웅과 동녘 사이를 가로막아, 동녘 대신 총을 맞았다. 놀란 태웅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데, 대원들이 일제히 총을 들고 태웅을 겨눈다.

“자, 이제 그만!”

지희가 바이크의 엑셀을 밟았다. 동녘은 황급히 허공에 떠오른 캣츠아이를 잡아 품 속에 집어넣었다. 동녘과 지희가 격납고를 빠져나가자, 캣츠아이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대원들이 어리둥절해하며 정신을 차리는 동안, 캣츠아이의 힘을 실감한 태웅이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동녘과 지희가 떠나간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

황폐함과 화려함이 공존하는 도시, 서울. 지희의 바이크가 오래되어 낡은 마천루로 들어갔다. 오랫동안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오래되어 흉물스러운 곳으로 전락해 버린 곳이었다.

❖

“뭐야, 당신들? 이런 건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지난 번 화장터는?”

낡은 건물 안에 대규모의 기지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 동녘이 말했다. 지희는 대꾸 없이 자기 자리에 앉았다.

“거긴 일부러 잡히려고 만든 미끼 장소였어.”

동녘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녘이 뒤를 돌자, 서창이 서 있었다.

“할아버지!”

서창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역시 할아버지라고 먼저 부르는구만. 서창이 아니라.”

동녘이 서창을 안으려는 듯 다가가자, 서창은 팔을 벌려 환영했다. 서창에게 달려간 동녘은, 있는 힘껏 서창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웃음이 나와요, 지금? 나는 지금 엄청 혼란스러운데! 내가 백호인지 동녘인지도 모르겠고! 계속 별 이상한 일만 생기고!”

서창은 맞은 데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는 듯,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백호도 만났나? 그가 너에게 뭐라고 하든?”
“할아버지랑 계속 연락하는 거 아니었어요?”

서창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린 아주 멀리 떨어져서 지냈다.”
“그럼 내가 만난 건 어떻게 알아요?”
“너의 동선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동녘의 생각이 복잡해졌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뭐부터 말해야 할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걸 따라와주기만 하면 돼.”

순간 동녘의 머리에 스파크가 치고 지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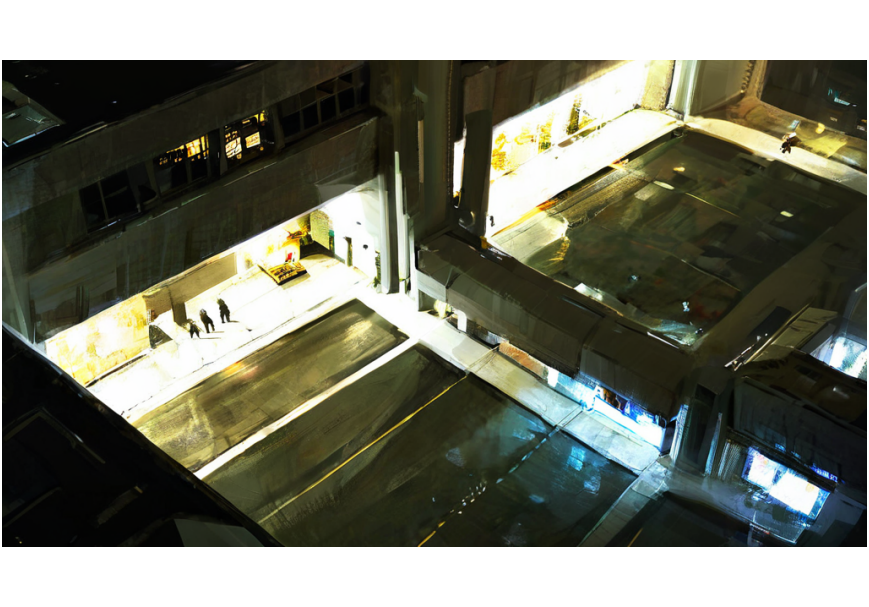
“아! 한재호 원장이 죽었어요! 근데 백호는 나에게 한재호가 나쁜 놈이라고 했고! 근데 죽었으면 끝인 거 아니에요?”
“한재호가 죽었을까?”

서창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답답해진 동녘이 말했다.

“네! 죽은 시체도 봤단 말이에요!”
“글쎄, 정말 그렇다면 우리 일이 수월해지겠지만….”
“우리 일이 뭔데요?”
“뭔지 말해주면 네가 감당할 수 있을까?”

동녘, 어이가 없어져서 말문이 막혀 버렸다.

“넌 백호가 아닌 동녘이다. 그렇기에 백호가 하지 못했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Continued to ep.21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